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2주일

2024년 1월 14일 / 제620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미정 제1독서 김태현 제2독서 홍순미 / 입당 29 봉헌 215, 512 성체 154, 198 파견 458
Narrator George Hegarty 1st Reader Anne Zadra 2nd Reader Theo Lee

입당송 |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 1사무 3,3ㄴ-10.19

화답송 | 시편 40(39),2ㄱㄴ과 4ㄱㄴ.7-8ㄱㄴ.8ㄴ-9.10

(◎ 8ㄴ과 9ㄱ)

-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2독서 | 1코린 6,13ㄴ-15ㄱ.17-20

복음환호송 | 요한 1,41.17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복음 | 요한 1,35-42

영성체송 |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01월 14일	주일학교 NO	Fr. Jim
01월 21일	주일학교 YES	Fr. Gerald
01월 28일	주일학교 YES	Fr. Gerald
02월 04일	주일학교 NO	합동 미사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경희 에우세비아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요한 1,41)

오늘 복음을 통해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당신을 따라온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머무시는 곳을 묻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서 주저함 없이 그들을 초대하여 하루를 지내십니다. 함께했던 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복음은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함께 머물렀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 곧 예수님의 사는 모습이 안드레아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와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 대한 부르심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거처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마태 8,20)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가난한 순회 설교자가 머무는 자리였으리라 짐작됩니다. 화려함으로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삶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출발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들과 벗하며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말씀으로만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가난한 이들과 벗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한 삶은 당신이 선포하신 사랑을 증언합니다. 가난한 삶 안에서 가르침과 삶의 일치로 이루는 모습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첫 번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벗하며 가난을 사셨던 그분의 생애는, 말만 하고 정작 실행하지 않는(마태 23,3 참조) 당대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과 대조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의 가난을 지향하며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은 믿는 이들이 복음적 가난을 살아가게 하며, 그러한 신앙인의 삶은 세상에 드러나는 빛이며 신뢰의 징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세상에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시몬을 케파라고 부르신 이야기가 알려주듯이 주님의 부르심은 믿는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모든 부르심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임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나선 제자들의 생애는 알려줍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복음의 가난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가난한 이들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경근아우구스티노 신부 | 주교좌 기도 사제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 준 침, 안약, 제충조절, 통증조절, 제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5분 묵상

참된 신앙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은 듣고 있습니다.”하고 깨어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안드레아처럼 주님을 따라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배움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움의 과정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할 때는 어머니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신명 32,11-12).

독수리는 높은 벼랑 위에 집을 짓습니다. 굵은 나뭇가지를 열기설기 엮어 놓고 그 위에 부드러운 털이나 짐승의 가죽을 깐 후 새끼를 기릅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날 수 있게 되면 어머니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멋진 날개가 다 자랐으니 둥지 속에만 있지 말고 창공을 멋지게 날아보렴.” 그러나 새끼들에게는 둥지 속 보금자리가 너무 좋아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독수리는 둥지 속에 들어와 새끼를 위해 깔았던 부드러운 털과 가죽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포근한 보금자리였던 둥지는 이제는 가시가 찌르는 가시방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에 태우고 창공을 날다, 높은 창공에서 날개를 털어 새끼를 떨어트립니다. 떨어지면서 새끼는 온 힘을 다해 날개를 퍼덕이며 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을 몇 번씩 반복하며 새끼를 훈련합니다. 이렇게 창공을 멋지게 나는 독수리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와서 보아라”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변의 소음과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갖가지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삶을 배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역경을 통하여 때로는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주님께 나아가 잠시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지내보십시오. 분명 우리 마음이 그분의 영으로 채워짐을 느낄 수가 있으며, 그분 사랑의 손길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굿뉴스-

1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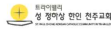
교회 내 다양성의 선물

For The Gift Of Diversity In The Church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의 선물을 깨닫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다양한 전통과 예법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도록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hat the Holy Spirit helps us recognize the gift of different charisms within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o discover the richness of different ritual traditions in the heart of the Catholic Church.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p> <p>잭성 HILLTOP FLEMONT FAIRFIELD NAPA DAVIS 직통: 510-283-6310 SUE CHO CELL: 510-776-5856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AIDEN KIM (에이튼 킴) (니콜라오)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p> <p>DRE # 01983236 </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p>	<p>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925-871-9746</p>



-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말씀의 식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찬의 식탁에서 하나의 빵을 나눌 때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하나입니다. 올 한해 우리 트라이밸리 공동체를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가꾸어 갑시다.
- 설 합동 위령미사 일정 및 신청 안내**
 - 일시: 2월 4일(주일), 오전 9시(한국어·영어 통합 미사)
 - 신청: 1월 28일(금)까지, 사무실(당일 생미사 봉헌 없음)
- 사랑의 모후 꾸리아 1월 월례 모임**
 - 일정: 1월 14일(주일), 오전 10시 45분 - 오후 12시
 - 장소: Room A
 - 대상: 각 브레시디움 간부들
- 주일학교 개학**
 - 일시: 1월 21일(주일), 오전 9시 30분
- 고학년 첫영성체 교리 시작**
 - 일시: 1월 21일(주일), 오전 9시 30분(소성당)
 - 대상: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5-7학년 학생
 - 문의: 박민숙 엘리사벳(Linda Park)
- 코트 도네이션 행사**
 - 기간: 12월 17일 - 2024년 1월 14일
 - 도네이션 품목: 새것 또는 깨끗이 쓴 코트, 자켓, 스웨터, 셔츠 등의 옷
 - 장소: 성당 로비에 준비된 도네이션 박스
- 트라이밸리 재속 프란치스코회 1월 월례 모임**
 - 일시: 1월 21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Room A
 -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 2024년 요셉회 굴파티**
 - 일시: 1월 20일(토), 오후 1시 - 3시 30분
 - 장소: 성당 주차장
 - 대상: 제철 굴을 즐기고 싶은 모든 신자
 - 판매 메뉴: 생굴, 굴바베큐, 떡볶이, 오뎅, 해물파전, 굴라면 재료 소진 시 판매 종료.
 - 문의: 장진환 라파엘(408-722-7383)

- 요아킴·안나회 1월 정기모임**
 - 일시: 1월 28일(주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30분
 - 장소: Room A
 - 강사: 장영애(스텔라) " Now and Here " 회원
 -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안내**
 - 인터넷 등록: ova.nec.go.kr(2024년 2월 10일까지)
 - 총영사관 선거팀 방문 접수: 1월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 등록 시 필요한 정보: 성명(한글/영문), 주민등록번호, 한국 여권번호
 - 재외선거 투표 기간: 2024년 3월 27일 - 4월 1일
 - 투표 장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산호세 KOTRA

1월 반모임일정

루 카 2반	1/14 (일) 12:15PM	성당 룸A	925-997-3127
마태오 5반	1/27 (토) 8:00PM	성당 룸A	510-468-8371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551	\$321	\$3275	\$110	\$105	\$5362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국진(1-3), 김지용(12/2023), 김흥기(3), 류경걸(1-3), 배성준(1), 이주하(1), 조현대(1), 지영민(1,2), 최원석(1), 홍사은(1-6), 홍석제(1), 황희숙(1)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국진(1-3), 류경걸(1-3), 이주하(1), 조현대(1), 최원석(1), 홍석제(1)
- Bishop's Appeal**
 김국진(1-3), 류경걸(1-3), 이주하(1), 조현대(1), 최원석(1), 홍석제(1)
- 성전봉헌금** 김현국 신부님, 두신, 주영근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